

일주문

조계사 성인 단기출가자 모집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4월 24일까지 부처님오신날 맞이 성인 단기출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02)720-1390

월정사 탄허대종사 회오 대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5월 25일 월정사 경내에서 제7회 탄허대종사 선사학양 전국회오대회를 개최한다.

마곡사 단기출가학교
공주 마곡사 주지 원해 스님은 5월 21일 마곡사에서 단기출가학교를 개강한다.

수덕사 신행단체 통합법회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17일 충청지역 신행단체 통합법회를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했다.

제26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4월 24일 경주 불국사에서 제26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송광사 삼월불사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4월 28일 송광사 승보전에서 계금불사 집안법회를 봉행한다.

대흥사 제17회 나라사랑 글쓰기 사생대회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4월 28일 대흥사에서 제 17회 나라사랑 글쓰기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항릉사 백옥대불 정안대법회
천대종 항릉사 주지 덕해 스님은 4월 18일 남북평화통일기원 백옥대불 정안 대법회를 항릉사 야외 동산에서 봉행했다.

무심사 낙동강 수륙재
대구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4월 24일 영남법패 회원스님 초청 제4회 낙동강 수륙재 대법회 및 경로잔치를 개최한다. (053)616-8080

동화사 제5대 신도회장
삼환주식회사 대표 한상화 회장은 4월 1일 대구 동화사 통일약사 대법전에서 동화사 제5대 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북녘에 평화의 등 달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집행위원장 혜경 스님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워도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뜻이 바르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신계사 평화의 등 달기를 통해 우리의 뜻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4월 27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평화의 등 달기 점등 행사를 갖는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민족화해기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강산신계사사적〉에 따르면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5년(519년)에 보은 스님에 의해 창건돼 653년 김유신이 증건했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민추본은 25일까지 불자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등 모연을 진행한다. 점등은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연등 모연 동참금은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한 자비의 쌀 지원기금으로 사용된다.

민족의 영산이며 불교의 성지인 금강산에 연등을 밝혀 남북의 불교계가 공동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국민들에게 민족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신계사를 방문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색된 남북관계에서도 정

부도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는 허용할 방침이고, 조계종도 신계사 복원의 의미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의 등 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북의 상황이 경색돼 있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수행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한을 밝히고, 자비 사상의 연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6·25 전쟁 중 폭격으로 소실된 신계사는 2001년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복원 사업을 추진했다. 2004년 4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복원 사업은 2007년 10월에 마무리 되면서 낙성법회를 갖기도 했다. 2009년에는 조계종과 조불련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계사 복원 2주년 기념 공동법회를 열기도 했다.

혜경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 조상들이 가꾸었던 부처님의 도량인 신계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금강산 신계사 평화의 등 달기에 많은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대한불교법상종 수계법회 및 산사음악회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4월 10일 안성 쌍미리사에서 용화계단 보살계 수계대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해월 법상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관내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시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해월 법상종 총무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수계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을 좀더 바르게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행사에는 불자 자녀 11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불교에 기여한 불자들을 위한 감사패가 전달됐다. 보살계 수계식에서는 700여 수계자들이 3사 7증이 증명하는 가운데 보살5계를 수계했다. (031)677-9950 노덕현 기자

여래종 세계승왕청 임명식 및 진신사리 이운 대법회 봉행



한국불교여래종은 4월 8일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세계고승 초청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4월 9일 성남 금강 대약사에서 세계고승원도심중보살대계를 봉행했다.

보살대계법회에서는 승왕청 임명식과 스리랑카 시암종 불치사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여래종으로 이운하는 대법회가 열렸으며 오후에는 원도심중보살대계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일어난 미얀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미얀마 대사관 측에 성금이 전달됐으며 불교발전을 위한 한국과 스리랑카·미얀마·태국 3개국의 문화교류 협약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한편 4월 10일에는 한국불교여래종 역사사에서 300여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한 가운데 점심 공양과 다과를 겸하여 세계고승의 법문과 기도법회가 열렸다. 11일에는 주 스리랑카 대사 초청으로 여래종 환영만찬이 진행됐다. (043)731-2261 노덕현 기자

“젊은 70·80 학번대 중심으로 개편”

대불련 총동문회 제24대 윤제철 회장



“동문회가 발전하려면 더 큰 수레가 돼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동문들을 폭넓게 규합하고 대불련 후배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생활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윤제철, 이하 대불련)는 4월 10일 열린법당에서 이취임법회를 열었다.

20만 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대불련에서는 현재 5000여 회원이 실질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0~90학번이 대불련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70학번대여서 대불련 총동문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제철

회장은 “회장은 동문회 활동의 기본방향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70·80학번대가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겠다. 가능한 90학번대에서도 유능한 회원들이 운영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제철 회장은 서울·경기, 충청지역에 지부설치 추진의사도 밝혔다. 윤 회장은 “특히 수도권 지역은 동문회 본부가 지부를 겸하고 있으나 지부로 독립해 보다 유연하고 회원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부장 회의를 활성화해 지부 간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대불련 총동문회는 대외적 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해 법인 ‘대불’을 출범시켰다. ‘대불’의 이사장직도 겸임하는 윤 회장은 수 십년간 기업경영에 참여해온 노하우를 살려 대불련 동문회와 함께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윤 회장은 “이웃종교단체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회원들 모두 대불련의 창설이념을 살려 참다운 구도자가 돼 참다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윤제철 회장은 1970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본부장을 거쳐 2005년 삼성회계법인 부회장을, 현재 동국대 겸임교수(회계학)를 맡고 있다.

이내은 기자

조계종 기획국장 진우 스님 상임감찰에는 탄공 스님 임명



진우 스님 탄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에 진우 스님이 임명됐다.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탄공 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5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탄공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임 기획국장 진우 스님은 만석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94년 법어사에서 정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전국제선센터 기획국장.

신임 호법부 상임감찰 탄공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6년 망월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법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광덕사·비례사 주지, 호법부 상임감찰 등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선종수사찰 봉은사 봉축 큰스님 초청 특별법회

“오늘,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한국불교 중흥도량, 도심포교의 거점도량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에서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큰스님 초청법회의 법석을 마련하고 사부대중을 초대합니다.

- 법회 기간 불기 2555(2011)년 4월 25일(월) ~ 30일(토)
- 시간 및 장소 오전 10시 / 법당루
- 문의처 봉은사 교무교육팀 02)3218-4817

- 법회일정
- 1 4월 25일(월): 임도 큰스님 (전 포교원장)
 - 2 4월 26일(화): 청화 큰스님 (전 교육원장)
 - 3 4월 27일(수): 종범 큰스님 (전 승가대학교 총장)
 - 4 4월 28일(목): 도영 큰스님 (전 포교원장)
 - 5 4월 29일(금): 성우 큰스님 (현 불교텔레비전 회장)
 - 6 4월 30일(토): 해춘 큰스님 (현 포교원장)

자비도량 참법기도 안내

선종수사찰 봉은사에서는 큰스님 초청법회 일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자비도량 참법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일시. 2011년 4월 21일(목)~30일(토) / 오후 2시 ~4시
- 장소. 봉은사 법당루
- 내용. <자비도량참법> 10권을 매일 1권씩 10일간 독송 회향일에 합동 천도재 봉행
- 동참금. 기도비: 10만원 / 합동천도재: 영가 1위 5천원 · 설판: 10만원(사시죽원)

문의 봉은사 교무교육팀 02)3218-4817